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② 우리 문화유산‘ 고인돌 ’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세계 유산으로 등록

이 종 훈
포천시회장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데, 형태에 따라 북방식(北方式:탁자식), 남방식(南方式: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고인돌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통 4개의 판석(板石)형태에 굄돌(支石)을 세워 돌방(石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편평한 덮개돌(蓋石)을 얹은 것이다.

고인돌은 계급사회의 발생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인돌은 한 지역에 다수가 발견되어 지배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의 묘지였을 것이다.

고인돌은 거석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집트나 마야의 피라미드, 중동지방의 각종 석조물, 프랑스 서북부 대서양 연안지역의 거석렬(巨石列)과 영국의 스톤헨지 등이 모두 거석문화에 포함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고인돌의 세계적인 분포권에서 가장 밀집된 곳이다.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그중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은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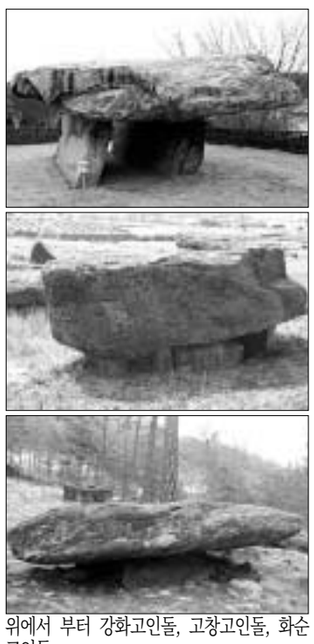
고창 고인돌유적은 전라북도 고창군일대에 동서로 약 1,764m 범위에 442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10톤 미만에서 300톤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 석곽형(地上石槨形)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공존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유적은 전라남도 화순군 일대의 계곡을 따라 약 10㎞에 걸쳐 500여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되어 보존상태가 좋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採石場)이 발견되어 당시의 석재를 다루는 기술, 축조와 운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강화 고인돌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고려산 기슭을 따라 12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는 길이 7.1m, 높이 2.6m의 한국 최대의 북방식 고인돌이 있으며, 한국 내 다른 지역의 고인돌 평균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m 200m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는 2000년 12월 2일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우리 포천시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금현리지석묘, 자작리지석묘, 추동리지석묘, 수입리지석묘 외에도 상당수의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



위에서 부터 강화고인돌, 고창고인돌, 화순고인돌.

교육에세이 34

독서를 통한 논술지도 방안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최근 들어 대학입시에서 논술(論述:essay)과 구술평가가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 하면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사고력 신장을 고려한 논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논술은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내세우고 주장의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는 것으로, 즉 ‘ 논(論)하는 글쓰기’ 이다.

여기서 ‘ 論한다 ’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놓고 그 진실의 여부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논증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쓰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에서는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논술문을 잘 쓰는 방법은 중국 송나라 때의 문인(文人) 구양수가 전하는 삼다(三多), 즉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의 실천에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모든 글쓰기 공부가 그러하듯이 논술을 위해서도 ‘ 삼다(三多) ’가 필요하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며, 많이 써 보아야 하는데, 논술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부터 알아야 하는데,

1) 논술 시험의 개념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

‘ 논술 ’이란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글 양식의 하나이므로 우선 논술이란 어떤 성격의 글인지 알아야 하며, 아울러 대학입시에서 주로 어떤 논제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출제되는지 알아야 한다. 논술에 대한 이해는 논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데, 이것이 논술의 출발점인 것이다.

2) 논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논술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어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도록 써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논술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문제의 요구에 맞추어 글로써 전개하는 과정을 훈련을 통해 익혀 두어야 한다.

3)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논술 시험은 지문을 제시하고, 제시된 글 속에서 쟁점을 찾게 하거나 논거를 얻게 하는 형식으로 출제된다. 제시문의 독해는 답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논술 공부에 부합하는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4)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논술의 핵심은 사고력이다. 논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는 능력 등이 모두 사고력인 것이다. 논술에서는 보다 새로우면서도 타당한 답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5)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

생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 어떤 것을 논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의 논술의 쟁점은 일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배경 지식은 사고의 재료요, 표본이지만, 알아야 할 내용이 많고도 어려워 오랜 시간동안 준비를 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만 한다.

6) 정확한 표현력, 글쓰는 전략을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력을 길러야 하지만, 다만 논술에는 논술에 맞는 표현 양식이 있어서 논술적 표현력을 익혀야 하며, 아울러 단계별(서론-본론-결론) 글쓰기 요령을 익혀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논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교육과제라는 인식 속에서 논술이 어렵다는 생각을 불식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개선된 수업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지도에 힘 입어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 토론, 논술이 논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술은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며, 쟁점 중심으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 습관 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학교의 독서지도와 가정이 연계하여 토론과 논술에 맞는 전략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논술의 진정한 목적이 대학입시의 당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증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쓰기인 점을 알고, 문제해결 방식이나 절차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포천은 불가능한가

박 정 근
대진 대학교
영문 학과 교수

포천은 산수가 뛰어난 경관을 지닌 곳으로 알려져 왔다. 주말이면 공해로 찌든 서울 같은 도회를 떠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이 간직되어있는 고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도시나 막걸리, 이동갈비라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브랜드가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붙어오긴 하였지만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달려가면 맑은 공기와 산소 같은 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신선한 이미지가 포천을 정의하는 좋은 아이템이 되어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포천이 달라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값싼 공장부지를 찾아 들어와 맑은 물과 공기를 오염시켰고, 분지 형태의 포천은 숨막혀 가는 대기로 인해 각종 호흡기 질환이 심한 곳이

“ 인간의 행복과 욕망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물질적 욕망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물질적 행복을 성취한 많은 현대인들이 허무함에 생을 버리는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사회적 개체적 정체성을 쉽게 변형시키거나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정한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행복을 발견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되어가고, 천변에는 맑은 물 대신에 염색공장과 가구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맑은 물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백운계곡 같은 깊은 계곡이나 가야 옛날의 정취를 찾아볼 수 있는 듯 하다.

행정가들의 눈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포천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 시(CITY)가 되고 그 것도 모자라 인구 수십만의 계획도시로 발전되는 것이 대단한 치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철원과 포천 일대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생태의 파괴로 인한 포천의 자연적 재앙에는 관심도 없고, 엄청난 규모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라고 부추기는 해괴한 운동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어려운 사업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단지 물질적 업적이라는 개발논리를 앞세워 수백, 수천의 세월 동안에 정착되어온 포천의 아름다운 산천과 사회적 정체성을 가볍게 물리친다는 것은 분명 신중치 못한 일이다.

세익스피어의 ‘ 태풍 에서는 개발과 자연의 갈등구조가 드러나 있다. 섬의 원주민 캘리반은 섬의 정복자 프로스페로의 적대관계는 바로 노예상태에서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피정복자의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캘리반은 스테파노가 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도취의 힘을 가진 스테파노를 이용해서 마술의 힘으로 섬을 정복한 프로스페로로 부터 자유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는 프로스페로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 다시는 생선을 잡지 않겠네/땔나무도 하지 않겠네/명령도 아랑곳하지 않겠네/쟁반도 안 닦고 접시도 씻지 않겠네/캘리번은 새 주인님을 만났으니--새 하인을 고용해야지/자유다, 만세다, 만세다, 자유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이전에 즐기던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정복자 프로스페로에게 노예상태로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은 에어리얼이다. 그는 마술과 문명의 힘으로 섬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스페로에게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철저히 충성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상징하듯이 공기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비가시적 존재이다. 그는 섬이라는 자연이 천연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낙원의 상태로 보고자 한다. “ 비록 한 치 불로의 땅이라도 좋으니 망망대해와 바꾸고 싶고, 잡초가 마구 자라고 갈색 가시금작나무 따위가 무성한 황지라도 상관없다 ”고 주장하며 개발이나 문명의 힘을 상징하는 프로스페로적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에어리얼이 추구하는 낙원은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는 세계이며, 인간의 삶의 방식을 풀어가는 두개의 인자이다. 인간은 물질의 방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현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낙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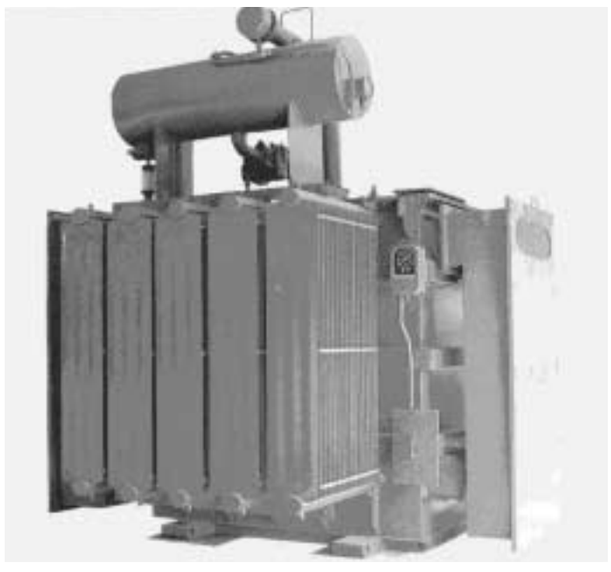
두 인자의 변증법적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이 이루지는 것은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도 이해될 수 있다. 에어리얼의 주장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하는 것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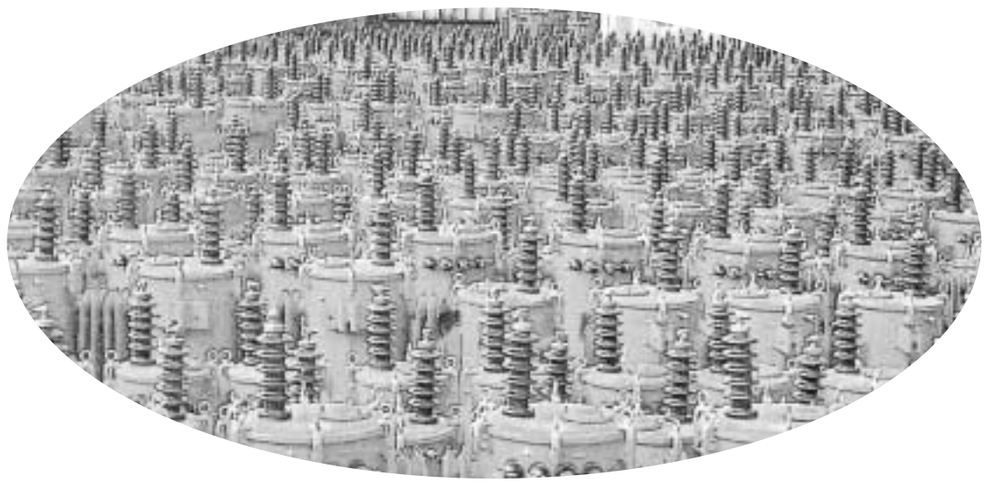
그는 “ 벌과 함께 꿀을 빨고/꽃송이 속에 누워/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 듣네./박쥐 등에 타고/여름을 따라가며 즐겁게 지나세/가지에 달린 꽃그늘 밑에서/즐겁게 지나세 ”라고 노래한다. 그야말로 음풍농월하는 시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인의 목가적 가치 추구가 진정한 행복을 획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욕망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물질적 욕망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물질적 행복을 성취한 많은 현대인들이 허무함에 생을 버리는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사회적 개체적 정체성을 쉽게 변형시키거나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정한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행복을 발견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포천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자연을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후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산업기기만을 보급하고 있는 삼흥ENG

최첨단 기술도입으로 완벽한 제품만을 고집!!





■ 생산품목
· 대형 변압기 · 중형 변압기
· 전력용 변압기 · 배전용 변압기
· 산업용 변압기 · 기타 특수 변압기

■ 취급품목
· O·T 판매 및 여과 교체

TEL (031)962-6452 / FAX (031)968-0142 대표 : 김 형 수